

[월간] 2022年 9月 1日(목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3年 第 567 號

제430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 기념행사 봉행

박범인 금산군수,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하여 국가사적지로 반드시 지정해야



박범인 금산군수

제430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 기념행사가 8월 26일 10시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북산리에 위치한 충장사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 김우근 금산경찰서장, 김유태 금산교육지원청, 진종현 금산소방서장, 김석곤, 김복만 충남도의회 의원, 정우균 금산군의회 의장, 최명수, 송영천, 김기윤, 박병훈, 정기수 금산군의회 의원,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편집국장, 권경관 안동권씨 금산종친회장,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권용석 금산인삼농협 군북작목반장, 김안기 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김상곤 원주문화원장, 장호 금산문화원장, 신명철 32사단 1970부대 대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범식 사회사의 진행에 따라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박범인 금산군수의 인사말씀,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의 인사말씀, 장호 금산문화원장

의 승전보고, 추모 묵념, 조총발사, 현화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치대첩기념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권율장군은 이치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광주목사에서 전라도순찰사가 되었고, 행주대첩 승전 후에는 도원수가 되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장군으로 추앙받고 있다. 2000년 9월 20일에는 이첩대첩지를 충청남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하여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제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추진하여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조명되어 환산될 수 있게 하고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기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은 제430주년 이치대첩기념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권율장군과 병사와 의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깃든 이치대첩은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꾸고 국난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라 지킨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호 금산문화원장은 승전 기록을 낭독했다. 이치는 전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로 배(梨)나무가

있는 고개(峙)라는 뜻의 우리말로 베티라 불렸습니다.

1592년 7월 10일 금산을 점령하고 있던 2만여 명의 왜군은 마침내 전주로 넘어가기 위해 진산을 지나 이치로 향합니다. 광주목사 권율장군은 동복(전남 화순) 현감 황진장군, 비장(大將)·비장(副將), 기병장(騎兵將)·기병장(副將) 등 1500여 장졸과 함께 이치에 진을 치고 적들을 막기 위해 이치 고개의 혐준한 굴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곳곳에 목책(木柵)을 밭아 만든 울타리(鹿砦)과 녹채(鹿砦), 대나무를 세워 사슴뿔처럼 만든 울타리를 세워 방어진을 구축하고, 조총의 공격으로부터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장(女牆, 성이나 바위 위에 낮게 보태어 올린 담)도 쌓고 나무 사이와 통로 요소 등에 거마(拒馬, 둑근 통나무에 창을 박아놓아 적군 기병의 진격을 막는 방해물)와 철질려(鐵蒺藜, 서너 개의 발을 가진 쇠못)를 깔고 합정도 파고 웨적을 기다립니다.

왜적은 금산까지 오는 동안 연전연승을 한데다 조선군과는 군대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으므로 기세등등하게 이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권율장군이 장졸들을 향해 “오늘 이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한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어 해가 저물 때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골짜기 가득 찬 창검

부딪히는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말 울음 소리는 10리 아래 상가리 금곡에서도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쳐렬했습니다.

전투 중 분전하던 선봉장 황진장군이 적의 조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며 수세에 몰리자 권율장군이 크게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서며 전투를 독려하자 다시 아군의 사기가 충전해졌고, 이후 적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하던 왜적들은 묵산리 서북쪽 영정곡(태고사 삼거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병장 권승경의 복병에게 또다시 최후의 일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 가장 불리했던 위기 상황에서 호남으로 진격하던 왜군을 막아내어 호남을 지키고 조선을 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32사단 1970부대 6대대 장병들이 이 충장사 옆에 도열하여 조총을 발사했다. 이어서 32사단 군악대의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추모 묵념을 하고 묵념이 끝나자 호국영령에 대한 현화와 분향을 했다. 현화와 분향은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12시까지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박범인 금산군수,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 장호 문화원장, 신명철 대대장 등 일행은 충장사 아래에 위치한 대첩비각을 찾아 일제시대 일본이 깨뜨린 대첩비를 보면서 이치대첩지를 반드시 국가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다짐했다. 장호 문화원장은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문화재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여 학술조사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이 이치대첩 기념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론을 띠우면서 촬영했다. 이 기록은 향후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권해옥 대종회 회장과 권영범 충장공종 중회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금산의회 온농의사 권오양 대표는 화환을 보내 제430주년 이치대첩제를 기념했다.

이치대첩제 행사 주최자는 2부 행사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산면 체육센터에서 금산국악관현악단과 소리꾼 장사의씨를 초청하여 이치대첩의 승전을 축하하는 공연을 마련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권옹렬 고문 제60사단 권율부대 창설 제47주년 기념 타월 300장 기증



창설 47주년 기념 타월 기증 기념촬영. 조영두 부사단장(왼쪽에서 세 번째), 권오상 사무총장(네 번째), 권영하 부회장(가운데), 백자성 사단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권행완 편집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안동권씨 대종회 권영하 부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은 제60사단 권율부대 창설 제4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권옹렬고문이 마련해 준 기념 타월 300장을 백자성 사단장에게 전달했다.

제60보병사단은 2002년에 부대상장 인물로 권율장군을 선정했고, 2022년에는 절의염퇴(節義廉退: 청렴과 절

개, 의리, 사양함과 겸양은 늘 지켜야 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전승불복(戰勝不復: 전쟁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동심협력(同心協力: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돋는다)의 권율장군 정신을 부대정신으로 제정하여 모든 부대원이 지표로 삼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8月 임원 회비 및 종보 대금 납부 내역

부회장	
권혁준(서울강남)	1,000,000
이사	
권정택(상주)	300,000
종무위원	
권오창(영주)	200,000
권오길(경주)	200,000
합계 :	1,700,000원

종보 대금 (납부기간: 07.29~08.25)

권순익(대구)	30,000
권영준(음성)	30,000
권오익(밀양)	30,000
권오창(영주)	30,000
권오현(서울송파 풍납동)	30,000
권유식(경기고양)	30,000
권중봉(거제)	30,000
권중욱(서울서대문)	30,000
권혁두(김해)	30,000
권혁모(여주)	100,000
권혁점(서울영등포)	30,000
합계 :	4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仲秋佳節



100만 족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권해옥 회장 외 임직원 일동